

“추운 겨울, 김장김치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요”

광주 우산동서 ‘사랑의 김장나눔’ 동네상인 김장재료 무상 기부도 나눔과정서 감사와 덕담 이어져 “어떤 이웃도 소외받지 않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될 김치니깐 더 정성을 들여야죠. 모두가 따뜻하게 울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지역에 첫눈이 내린 27일 광주 북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타 모자를 쓴 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였지만, 봉사자들은 추위를 잊은 채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갔다.

북구 우산동 주민들은 북구가 추진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김장 나눔 봉사를 펼쳤다.

북구는 지난 2018년부터 관내 27개동 자생단체와 연계해 돌봄 이웃, 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달해오고 있다.

우산동 주민들은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자생단체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선물하고 있다.

매년 그랬듯 이날도 우산동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모여,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부녀회·통장단·주민자치회 등 50여명이 일손을 보탬다.

김장행사의 취지를 듣고 말바우시장 등 동네 상인들이 김치 양념에 필요한 재료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구매한 만큼 담

을 얹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앞서 이틀간 센터에 나와 김장배추 염장과 양념제조 등을 마친 봉사단은 이날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고, 완성된 김치를 이웃들에게 배부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은 김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길게 늘어진 테이블 앞에 고무장갑을 끼고 자리잡은 봉사자들은 얼굴과 옷소매 등에 양념이 튀는 것도 모른 채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갔다.

봉사자들은 김장과 포장 등 맡은 역할을 소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오래지 않아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봉사자들은 이웃과 서로 안부를 나눴고, 행사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김장 도중에도 간을 보기 위해 따로 빼둔 김치를 옆사람에게 먹여주며 서로를 격려해 힘을 북돋웠다.

2시간여동안 진행된 김장을 마친 후 봉사자들은 센터 회의실에 둘러앉아 김장김치와 함께 준비한 수육과 막걸리를 곁들이며 허기를 달랬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이웃에게 맛있는 김치를 선물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김장 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노순영(55)씨는 “매년 이맘 때면 이웃들에게 나눌 김장 준비를 위해 동네가 분주해진다”면서 “정성스레 담긴 김치가 이웃들의 밥상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오늘의 추위를 모두 잊을만큼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김장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환하게 웃어보였

다.

같은 날 오후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김장김치를 수령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치를 수령한 주민들은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센터 문을 나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봉사단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김치를 배부했다. 산타 모자를 쓴 봉사단이 벨을 누르고 정겹게 인사를 건네자 어르신들은 “날이 추운데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미안함이 가득한 타박을 건네면서도 “열린 들어와 따뜻한 곳에서 쉬었다 가라”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방문하는 가구마다 “매년 직접 담근 김치를 선물해줘 감사하다”거나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시라”는 감사인사와 덕담이 오고갔다.

이세영 우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웃과 함께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주민 간 끈끈하게 결속을 다지게 된 것 같아 뜻깊다”며 “특히 봉사자들의 맘과 정성이 담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선물이다. 우리 이웃 모두가 울겨울 따뜻하게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정 북구 우산동장은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주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김장 나눔행사는 지역 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이웃도 소외받지 않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27일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뿌리고, 티우고, 나누며 마음을 연결하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한 금호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산타복을 입고 직접 버무린 김치를 들고 운암2동 관내 경로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북구제공

음주운전 쫓다 사망사고 유발한 유튜버, 검찰 송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다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 숨지게 하며 ‘사적 제재’ 논란(전남일보 9월24일 4면)을 일으킨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 A(4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50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뒤

쫓았고, B씨 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8월 광산구 한 유흥가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

다.

조사결과 음주 의심자를 추적하고 신고부터 단속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생중계로 송출하며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B씨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뒤 도망가는 B씨의 차량을 추적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때 A씨의 구독자 5명도 다른 차량 2

대를 이용해 B씨를 함께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B씨에게 한 행위가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민현기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